

지역 매아리

첨단농업 거점도시 육성 속도

새만금고속도로 개설 '순항'

김제,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

조사결과는 12월말 공표

김제시는 20일부터 9월4일까지 12일간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시 관내 표본조사구내 거주하는 가구 중 만 1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등 7개 분야 총 45문항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 조사항목을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오는 12월말 공표 예정으로 전북도 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 포털에 공표한다.

김황중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므로 전라북도 정책개발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선정

지난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되어 첨단농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조성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초대형 국정 프로젝트 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영농 지식·경험·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제 청년창업농, 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참신한 청년의 창·취업을 지원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게 된다. 특히 김제시 백구 부용저수지에 조성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초기 리스크를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부지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업인이 원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자재 및 제품을 개발해 전시·체험 공간에서 농업인과 전후방산업체가 함께 공감하고 동반성장하는 혁신모델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농업분야에 기업이 개입하려는 건 아닌지, 농산물 과잉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사업대상자가 국공유지이고, 시설의 소유권도 지자체로 귀속됨으로써 공적영역안에서 관리하게 된다.

김제시 부용저수지에 조성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김제시 소유로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김제시 의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임의적 매각은 불가능하다.

또한 조성지역에 약 20ha 규모로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새로운 농장을 모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 시설농가의 현대화와 연구단지, 창업보육 기능을 집적화 한 것으로, 실제 작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 농장은 학생들의 교육용·임대용 온실이다.

며 생산된 농산물은 수급에 영향을 없도록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APC를 통해서 지역 원에 농산물까지 수출 계획이다.

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시설원에 농가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백산면 강명진 딸기 농가는 "2년 전 귀농해 수도작이 대부분인 김제에서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교육 및 관련정보가 없어 경남 진주 등 타 지역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70%나 증가하는걸 보면서 본인 조차도 놀라웠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김제가 선정되어 우리시가 농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로 선정돼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김제시로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가 소득을 올리고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의 창·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10월까지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시

김제시는 새만금사업 및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새만금고속도로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에 동분서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오는 2022(예정)년까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서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까지 연장 55km(김제 구간 34.37km), 총사업비 1조 9,000억원이 넘는 대형 도로개설사업이다.

새만금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이 가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경자구역 개발 등에 따른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새만금사업에 한층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형 도로개설사업에 기초사업인 지적측량을 35°C가 넘는 더위에도 김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가 의기투합해 신속·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새만금고속도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고속도로 지적측량은 1차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서 측량후 검사요청을 하면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에서 현지측량 및 도면 성과검사후 지적측량이 완료된다.

이에 김제시는 "오늘 10월까지 새만금고속도로 지적측량을 완료해 새만금사업 및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용진읍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건강대학 수강 신청하세요"

김제보건소, 선착순 50명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김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민건강대학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매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 인기몰이 중이다. 하반기 주제는 '뇌 건강으로 웰빙 백세를!'이며,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9:00~12:00)에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우아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룸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돕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뇌 건강 체조, 주의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보드게임, 인지퍼즐 맞추기,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준비 착착... 체험 프로그램 사전신청 접수

10월 5~9일 김제 벽골제서 쌀 강정 한반도 만들기 등 총 10개 프로그램 참여 가능



김제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 프로그램은 '벽골제 쌀통 햇벌 페스티벌', '지평선 쌀 강정 한반도 만들기', '노전 2033 글로벌 제기차기', '모라모라! 아궁이 쌀밥 짓기', '글로벌 지평선 쿠키 클래스', '지평선 야(夜)한밤에', '세계인 대동 연날리기', '비겨(글라이더) 경연대회', '가족대항 행복한 초가집 만들기', '지평선쌀 전통 가양주 만들기 체험' 총 10개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전 신청 프로그램 중 10월 8일에 열리는 지평선 쌀 강정 한반도 만들기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념하는 글로벌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마친 후 맛있는 쌀강정을 나누며 김제의 맛을 느낄 수 있

으며, '글로벌 지평선 쿠키 클래스'는 냉장고를 부탁해의 인기셰프 오세득과 함께 김제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김제만의 레시피로 요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모라모라! 아궁이 쌀밥 짓기'는 축제기간 5일 동안 11시부터 15시까지만 운영하며 시간당 30팀만 접수받아, 참가자에게 제대로 된 아궁이 발맛을 볼 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박준배 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단연코 대한민국 축제 중 체험프로그램 베스트셀러 축제로, 올 축제는 보다 강화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 체험프로그램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festival.gimje.go.kr)에 접속해 '축제 사전신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인일자리 어르신 인권 강화 앞장

완주 용진읍, 80여명 대상

상담사 초빙 교육 '호응'

완주군 용진읍(읍장 최우식)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용진읍은 지난 16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박미애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지원팀 상담사를 초빙해 노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행동지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인권교육과 함께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한 응급열선 예방과 홍보, 응급처방법 및 무더위쉼터 이용하기 등에 관해 자세히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이 모 어르신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용어들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렸지만 나의 가치를 생각하자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폭염을 이겨내는 처방까지도 배우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우식 용진읍장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수급에 감사드리며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실천과 어르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